

저자 (Authors)	주경미 Joo, Kyeongmi
출처 (Source)	미술사논단 (34) , 2012.6, 187-214(28 pages) Art History Forum (34) , 2012.6, 187-214(28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미술연구소 Center for Art Studies, Kore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909575
APA Style	주경미 (2012). 고대 동남아시아의 귀걸이 전통과 그 영향. 미술사논단(34), 187-21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30 15:4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고대 동남아시아의 귀걸이 전통과 그 영향

주경미

I. 머리말

周昞美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
HK研究教授
서울大學校
考古美術史學 博士
東洋美術史

인간의 몸을 치장하기 위한 장신구는 인류가 가장 먼저 제작하기 시작한 공예품으로서, 선사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된다. 장신구는 재질과 형태, 종류가 지역별, 시대별로 매우 다양하며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는 장신구들은 비슷하면서도 서로 차이가 있다. 현대의 장신구는 착용하는 사람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대 사회에서의 장신구 착용 목적은 현대와는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다. 특히 고대에는 사회적, 문화적 요구에 의해서 장신구가 착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신분이나 지위, 종족 등의 표현을 위해 착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고대 장신구의 변천은 사회 및 문화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일찍부터 독특한 장신구 착용 문화가 발달했으며, 현재까지도 장신구 제작과 사용이 가장 발달한 지역 중의 하나이다. 서구 학계에서는 인도차이나반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도서지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동남아시아의 장신구 문화에 대해서 일찍부터 소개가 이루어졌지만,¹ 국내에서는 거의 연구되지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에서 수행한 인문한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NRF-2008-362-B00018)

** 필자의 최근 논저: 「고려시대 월정사 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再論」, 『震檀學報』113, 2011, 12; 「韓日古代 佛舍利莊嚴의 비교 연구」, 『불교미술사학』12, 2011, 10; 『대장장』, 민속원, 2011, 4; 「몽골 출토 흉노시대 금속공예품 연구」, 『新羅文化』37, 2011, 2; 「남송대 정치 변동과 불사리장엄」, 『미술

않았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대체로 인도네시아 도서지역의 원주민 장신구가 중심인데,² 아직까지 이러한 연구는 특정 지역의 장신구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단계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장신구 문화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남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상 언어와 종교, 관습, 문화가 지역마다 다양하게 발전하였으며, 사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역사적 발전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역학적 특색에서 기인한다. 특히 장신구의 연구는 장신구 자체의 조형적 특성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례와 관습, 개인의 기호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가 어렵다.³ 그렇지만 최근 각 지역에서 이루어진 활발한 고고학적 조사들은 동남아시아 장신구 문화를 연구하는 데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선사시대 이후 유적에서 출토되는 각종 장신구의 조형적 특징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잔존한 경우가 많으므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일정한 형식의 장신구들이 지역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장신구 중에서도 먼저 현존하는 유물이 풍부한 고대의 귀걸이를 중심으로, 역사적 발전과정과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동남아시아의 귀걸이는 신석기시대부터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지역의 귀걸이는 ‘피어싱(Piercing)’을 해서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귀에 거는 고리 부분이 아주 큰 대형 귀걸이가 많다.

이러한 대형 귀걸이 중에는 한국의 고대 유적에서도 종종 출토되는데 太鑽耳

사와 시각문화》9, 2010, 10.

- 1 동남아시아 장신구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로는 Anne Richter, *Jewelry of Southeast Asia* (New York: Harry N. Abrams, 2000) 참조. 최근 앤 리히터는 2000년 출간한 책의 도판 부분을 별도의 단행본으로 재출간했다. Anne Richter, *The Jewelry of Southeast Asia* (New York: Thames and Hudson, 2010). 2010년의 재출간본은 소프트커버로 바뀌면서 흑백도판과 집필 부분을 생략하고 컬러 도판만 수록하였으므로, 본고에서는 모두 2000년도 출판본을 인용한다.
- 2 인도네시아의 장신구에 대해서는 다음 책 참조. Bruce W. Carpenter, *Ethnic Jewellery from Indonesia - Continuity and Evolution, The Manfred Giehmman Collection* (Singapore: Editions didier Millet, 2011); Anne Richter and Bruce W. Carpenter, *Gold Jewellery of the Indonesian Archipelago* (Singapore: Editions didier Millet, 2011).
- 3 동남아시아는 민족 구성이 다양하고 민족별, 혹은 지역별 언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언어상의 난점이 상당히 큰 편이다. 인도차이나반도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은 모두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나라별 지역 언어도 많다. 한편 도서 지역을 대표 되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에서도 대부분 도서별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장신구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300여 개의 종족이 600여 개의 지역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도서지방의 원주민들과는 대화도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아직까지는 심도 깊은 연구가 어려운 편이다.

飾, 즉 굽은고리 귀걸이나 耳栓(ear reel)과 같은 원판형 귀걸이 형식도 종종 보인다. 아마도 고대 한국의 귀걸이 문화는 해로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전해져 형성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⁴ 한국에서는 중국 복식 및 유교 문화의 도입과 함께 이러한 피어싱의 대형 귀걸이 착용 풍습이 점차 사라졌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지금까지도 이러한 대형 귀걸이들이 각 지역의 원주민들에 의해서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하여 사용되고 있어서, 살아있는 고대의 전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즉, 동남아시아의 고대 귀걸이는 동아시아와의 관계 및 현대와의 관계를 교차하여 보여주는 중요한 시각문화적 증거물이자, 이를 통하여 고대 아시아 문화 교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역사적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II. 피어싱과 대형 귀걸이 착용 전통

동남아시아의 원주민들은 대부분 귀에 거대한 귀걸이를 착용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다. 동남아시아 중에서 가장 북쪽에 해당하는 베트남 북부 산간지역에서부터 가장 남쪽의 인도네시아 섬들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의 전통문화에서 귀걸이의 착용은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착용 되는 귀걸이의 형태나 크기, 재질은 지역마다 차이가 크지만, 대체로 귀걸이는 꿇불에 구멍을 뚫어서 착용하는 피어싱 방식으로 착용된다^{1, 2}.

베트남 북부 산간의 오지마을로 알려진 라오카이(Lao Cai)와 사파(Sa Pa) 지역에는 자오(Zhao)족, 흐몽(Hmong)족 등 여러 소수 민족이 살고 있다. 이 소수 민족의 여성들은 대부분 귀를 뚫어서 커다란 귀걸이를 착용한다¹. 이러한 귀걸이는 대부분 현지에서 은으로 제작되며, 관광객용으로 팔리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소수 민족들은 2~3살 정도의 어린아이 때부터 귀에 구멍을 뚫는다. 바늘에 실을 꿰어서 어린아이의 귓바퀴 아랫부분을 찢어서 귓구멍을 낸 후, 그 구멍이 다시 막히지 않도록 그 구멍에 실을 계속 매달아 놓는다. 실제로 이 지역의 어린이 중에는 양쪽 귀를 모두 뚫고 실로 만든 간단한 귀걸이를 매달아 놓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². 피어싱의 전통이 있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어린 시절에 바늘로 귀를 뚫어서 귀걸이

⁴ 한국 고대 귀걸이 착용 문화와 인도·동남아시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주경미, 「韓國 古代 耳飾의 着裝方式 研究」, 『역사민속학』 17(역사민속학회, 2003. 12), pp.31-54 참조.



를 착용하는데, 이러한 풍습은 현재 내몽골 지역에서도 확인된다.

사실 피어싱의 풍습은 인류 문명의 초기부터 현대까지 지속된 보편적인 문화의 하나이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지역의 문화에서도 이러한 흔적은 찾아볼 수 있으며, 인도 아대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는 동남아시아와 마찬가지로 피어싱을 하고 귀걸이를 착용하는 풍습이 아직까지도 일부 소수 민족의 전통으로 남아 있다.

이 중에서도 피어싱과 대형 귀걸이 착용 풍습이 일찍부터 발달한 것은 이집트이다. 이집트에서는 중왕국시대 이전부터 돌로 만든 굵은고리(太鑲) 귀걸이들이 사용되었으며, 벽화나 조각, 그리고 실제 귀걸이 출토 예 등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석제 귀걸이들이 금속제로 대체된 것은 신왕국시대 즈음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1500년에서 600년경으로 추정되는 이집트의 신왕국시대 유물 중에는 금으로 만든 굵은고리 귀걸이가 있다³. 이 귀걸이는 얇은 금판을 두드려서 C자 형태로 생긴 속이 빈 파이프 모양의 고리를 만들고, 파이프의 양쪽 끝 부분에는 또 다른 얇은 금판을 붙여서 만든 것이다. 이것은 크기와 형태, 제작방식 등이 한반도의 고대 삼국시대 고분 출토 태환이식과 거의 흡사하다.⁵

이러한 굵고 둥근 고리 형태의 귀걸이는 이집트의 신왕국시대에 특히 유행했

1
귀걸이를 한 호몽족여인
2009년
베트남 북부 박하시장
주정미 촬영

2
귀에 실고리를 매단 자오족
어린이
2009년
베트남 북부 사파 타핀마을
주정미 촬영

⁵ 이러한 이집트의 태환이식들의 존재를 일찍부터 확인한 이인숙은 신라 태환이식의 기원이 이집트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李仁淑, 『金과 琉璃-4~5世紀 古代 韓國과 실크로드의 遺寶』, 『中央아시아 研究』2(중앙아시아학회, 1997), pp.70-72. 그렇지만 이집트와 고대 한반도의 역사적·지리적 거리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신라 태환이식의 직접적 기원을 이집트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3
 금제 굽은고리 귀걸이
 기원전 1500~600년경
 이집트 신왕국시대
 아스완 누비아박물관
 주경미 촬영

던 것 같다. 테베의 왕가의 계곡에서 발견된 트와스레 여왕(Queen Twosre)의 무덤에서는 위와 유사한 형식의 엘렉트럼(electrum)계 主環에 파이앙스(faience)와 홍옥수(carnelian)로 만든 구슬로 만든 드림장식 여러 개를 매단 귀걸이가 출토되기도 했다.⁶ 트와스레 여왕은 세티 2세(Sethos II, 1203~1196 BC

재위)의 부인이자 그의 사후에 잠시 여왕을 지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이 이집트에서 드림장식이 달린 C자형의 금속제 굽은 고리 귀걸이 형식은 기원전 12세기 경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금속제 굽은고리 귀걸이의 사용은 현재로서는 이집트가 제일 빠를 것으로 생각되지만, 비슷한 시기부터 피어싱을 해서 귀걸이를 착용하는 풍습은 근동지역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도 있었다.⁷

근동지역에서는 고대 아시리아 시대의 석조 부조에서 왕이나 신들이 피어싱을 하여 귀걸이를 착용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분이 높은 남자들이 귀걸이를 착용한 예가 많았으므로, 귀걸이가 하나의 위세품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⁸ 고대 아시리아에서는 기원전 8~7세기경부터 귀걸이와 같은 작은 장신구들을 주조하기 위해서 작은 석판에 음각으로 장신구의 형태를 조각한 거푸집을 사용하기도 했다.⁹ 이러한 석조 거푸집의 사용은 이후 인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고대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서 주목된다. 그렇지만 고대 근동 지역의 귀걸이 중에는

⁶ Cyril Aldred, *Jewels of the Pharaohs*(New York: Thames and Hudson Ltd., 1971), p.139의 도131 및 p.234 도131의 설명 참조.

⁷ 이러한 고대 문명의 귀걸이 착용 문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연구가 없으므로, 각 문화 간의 선후 관계나 영향 관계를 논의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많다. 다만 신라 태환이식과 유사한 이집트 신왕국시대의 금제, 혹은 엘렉트럼계 굽은고리 귀걸이와 유사한 형식은 근동 지역보다는 오히려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각 지역학 전공자들의 심도 깊은 연구가 선행된 이후에야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⁸ 아시리아 부조의 귀걸이 표현은 다음 책의 도판 참조. J. E. Curtis and J. E. Read (ed.), *Art and Empire - Treasures from Assyria in the British Museum*(New York: Harry N. Abrams, Inc., 1995), pp.45, 50, 54, 57, 59.

⁹ J. E. Curtis and J. E. Read (ed.), 위의 책(1995), p.175, 도178 참조.

굵은고리 형식의 귀걸이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 귀에 거는 고리 부분은 가는고리[細環]가 많다.

여러 지역의 피어싱 풍습 중에서도 특히 고대 동남아시아의 귀걸이 문화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인도의 귀걸이 문화이다. 인도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찍부터 피어싱과 귀걸이의 착장이 사회적 의례(ritual)로서 발달했으며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물론 귀에 다는 장식품의 형태와 종류, 재질은 신분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까지도 귀를 뚫고 귀걸이를 다는 풍습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례 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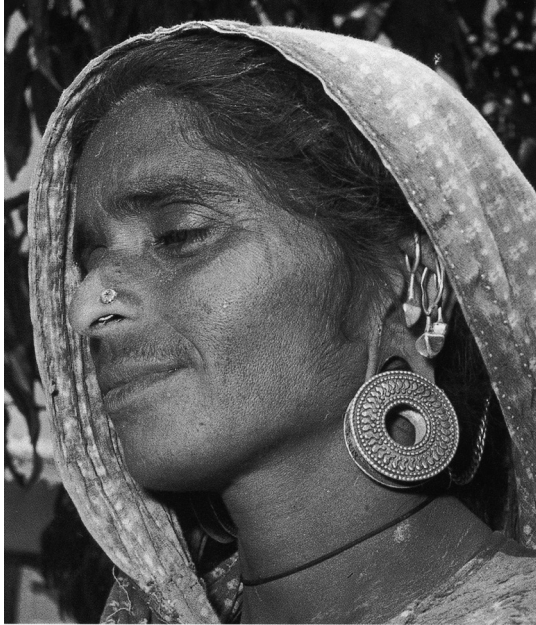
현대의 힌두교도들은 고대의 풍습에 따라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인생의 여러 단계를 지날 때마다 일정한 사회적 의례를 행한다. ‘삼스카라(Saṃskāra)’라고 불리는 이러한 인생의 단계들은 일반적으로 16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중에서 어릴 때 지내는 의례 중의 하나가 바로 ‘카르나베다 삼스카라(Karṇavedha Saṃskāra)’이다. 카르나베다 삼스카라는 생후 6~7개월, 혹은 생후 3~5세의 어린이들에게 베푸는 의례로서, 금바늘, 혹은 동바늘로 귓볼에 구멍을 내고 금제, 혹은 동제 귀걸이를 달아주는 의례이다.¹⁰ 이러한 삼스카라의 기원은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전 200년경 찬술된 인도의 고대 문헌인 『그리하 수트라(Grhya Sūtra)』에서부터 찾을 수 있으며, 이후 여러 힌두교 문헌에서 삼스카라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현대의 힌두교도들은 어린이의 귀에 금귀고리를 달아주면 신체가 건강해지고 힘이 세지며 모든 병을 물리친다고 여긴다. 인도에서는 귀에 피어싱을 한 이후, 지역에 따라 대형의 귀걸이를 착용하기 위해서 해마다 귀걸이의 굵기를 늘려가면서 귓볼의 크기를 늘리기도 한다.

인도에서는 이러한 대형 귀걸이의 착장이 이미 기원전 6000년경의 하라파 문명에서부터 발견된다.¹¹ 이렇게 귓볼을 늘려서 착용하는 인도의 귀걸이들은 매우 다양한 형식이 있으며,¹² 아직까지는 일정한 형식 분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¹⁰ Nilamani Gol, “Birth and Childhood Customs,” in Diviash Thakrar and Rasamandala Das, *Caring for Hindu Patients*(Radcliffe Medical Press, 2008), p.62; Aarti Aggrawala and Jyotindra Jain, *National Handicrafts and Handlooms Museum*(New Delhi: Mapin Publishing, 1981), pp.54-58; Rajbali, Pandey, *Hindu Saṃskāra: Socio-Religious Study of the Hindu Sacraments*(Delhi: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1993), pp.102-105.

¹¹ Michel Postel, *Ear Ornaments of Ancient India*(Bombay: Franco-Indian Pharmaceuticals, 1989), p.5.

¹² 오피 운트랏트는 인도 귀걸이의 종류를 형태와 조합방식에 따라 적어도 35가지 이상이 있다고 보았으며, 현대 인도의 각종 귀걸이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Oppi Untracht, *Traditional*



4
 여러 개의 귀걸이를 착용한
 인도 여인
 현대 인도 구자라트 지방
 (Oppi Untracht, *Traditional
 Jewelry of India*, 1997,
 p.223, pl.450)

인도 고대 귀걸이의 형식을 귀에 거는 부분의 형태에 따라 크게 나누어보면, ① 파이프 형태를 구부려서 말아 놓은 끝이 벌어진 고리 모양의 C자형 귀걸이와 ② 굽은 봉이나 원판, 혹은 디스크 모양의 圓形 귀걸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리의 양쪽 끝이 붙지 않고 떨어진 C자형 귀걸이들은 장식적 측면이 강한 편이다. 이러한 형식은 고리의 양쪽 끝 부분이 중간에 비해서 가늘어지는 초승달형식의 귀걸이나 고리를 두서너 번 정도 스프링 모양으로 감아서 만든 장식적인 귀걸이 형식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한편 원형 귀걸이들은 가늘고 긴 원형의 棒 모양, 작은 원판이나 실패 모양, 혹은 구멍이 뚫린 원판 모양 등 여러 가지 세부 형식으로 나누어지는데, 대체로 귓볼의 구멍 크기를 키우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귀

걸이들로 보인다. 현대의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는 귀의 위쪽에 C자형 귀걸이를, 그리고 귓볼에는 대형의 원형 귀걸이를 함께 착용하는 경우도 많다⁴.

인도 귀걸이의 재료는 선사시대에는 흙과 돌로 만든 것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금속기의 제작이 시작되면서부터는 금이나 동으로도 제작된다. 금속제 귀걸이를 제작할 때에는 근동지역의 아시리아에서와 같이 돌을 깎아서 만든 틀을 이용하여 귀걸이를 제작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는데,¹³ 인도의 귀걸이 제작용 틀은 아시리아의 주조용 틀과는 달리 얇은 금판을 눌러 찍어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다. 이것은 당시 인도의 금속공예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인도의 고대 귀걸이 형식과 제작기법, 피어싱의 착장 방식 등은 모두 비슷한 시

Jewelry of India (London: Thames and Hudson, 1997), pp.218-226. 미셸 포스텔은 그의 책에서 하라파 시대의 귀걸이를 중심으로 고대 인도의 귀걸이를 ① 원추 및 원봉형 귀걸이(conical and tubular earring), ② 環形 귀걸이(annular earring), ③ 디스크형 귀걸이(discal earring), ④ 암포라형 귀걸이(amphora type earring), ⑤ 핀형 귀걸이(Pin type earring), ⑥ 초승달형 귀걸이(crescent type earring), ⑦ 기타 등 크게 7가지 형식으로 구분했다. Michel Postel, 위의 책(1989), pp.81-100. 그러나 이미 그의 책에서 제시되었듯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이러한 귀걸이 형식은 꾸준하게 변화 및 세분화되었으므로, 인도 귀걸이 전체를 포괄하는 형식 분류 체계를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¹³ 인도의 석조 귀걸이 제작 틀에 대해서는 Michel Postel, 위의 책(1989), p.27.

기의 동남아시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고리의 끝 부분이 가늘어지는 초승달 형 귀걸이나 굵은고리 귀걸이, 원봉형이나 원판형 귀걸이들은 모두 동남아시아의 선사시대 유적에서부터 발견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몇몇 형식들은 근현대까지도 동남아시아의 각지에서 계속 사용되어 왔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귀걸이의 착장 방식과 형태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은데, 동남아시아 귀걸이의 기원이 모두 인도에서 전해진 것인지는 자세하지 않다. 그렇지만 꿇볼의 구멍 크기를 키워서 지름 2cm 이상으로 만든 후 그 꿇볼 구멍에 커다란 귀걸이를 하는 풍습은 아마도 인도 고대 문화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금속기의 제작과 힌두교 및 불교 등의 문화가 인도로부터 전래된 기원후 1~6세기경에는 인도의 장신구 착용 풍습의 영향이 매우 커졌다. 다음으로는 고대 동남아시아에서 유행했던 선사시대의 옥제 '링링오(Lingling-o)' 귀걸이를 중심으로 당시의 문화 교류 양상에 대해서 고찰하겠다.

Ⅲ. 옥제 링링오 귀걸이의 유행과 전파

동남아시아의 고대 문화 편년은 지역별로 다소 편차가 있으며, 편년 안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이견이 있다. 대체로 신석기시대의 유적들은 기원전 4000~1000년경에 분포하고 있으며,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의 변화는 기원전 2000~1000년경에 일어났다. 이 지역에 철기가 전래되는 것은 기원전 500년경 이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⁴ 그렇지만 동남아시아의 각 지역의 문화 발달 단계는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청동기와 철기는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지역별로는 인도차이나반도의 해안가와 북부 고산지대,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포함하는 도서지대의 문화가 서로 차이가 있다. 인도차이나반도에서는 베트남 북부지역과 중부지역과 남부지역이 서로 민족적 기원과 문화적 특색 및 역사발전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지만 고대 동남아시아에서는 일찍부터 해로를 통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러한 교역의 산물로서 주목되어 온 여러 가지 유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옥석제 귀걸이이다. 귀걸이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

¹⁴ Peter Bellwood, "Southeast Asia before History," in Nicholas Tarling (ed.), *The Cambridge History of Southeast Asia, volume one, part one, From Early times to c. 15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94.

石製玦狀耳飾
 기원전 1500년경
 베트남 동터우 출토
 하노이 베트남역사박물관
 (Anne Richter, *Jewelry of
 Southeast Asia*, 2000,
 p.26, pl.3)



작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체로 신석기시대 후기부터로 추정된다.

베트남 북부의 동터우(Dong Dau) 유적에서 발견된 돌로 만든 굽은고리 귀걸이는 玦狀耳飾이라고도 불리는데 기원전 150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⁵. 이러한 굽은고리 귀걸이는 둥그렇게 말아 놓은 고리 형태로 단면은 납작한 경우가 많다.¹⁶ 이러한 형태의 굽은고리 모양의 귀걸이들은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까지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유행한다.¹⁷

특히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의 베트남 중부 지역에서 발달한 독특한 형태의 귀걸이들은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중요한 문화사적 자료들이

¹⁵ 동터우 유적은 베트남 홍강 인근의 선사시대 유적으로서,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전환하는 시기의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유적의 연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기원전 13세기에서 기원전 9세기 경(3250~2850 BP)이라고 한다. Nguyen Quang Mien, "Radiocarbon Dating of the Dong Dau Period," *Bulletin of the Indo-Pacific Prehistory Association*, vol.25(Seattle: The Indo-Pacific Prehistory Association, 2005), pp.113-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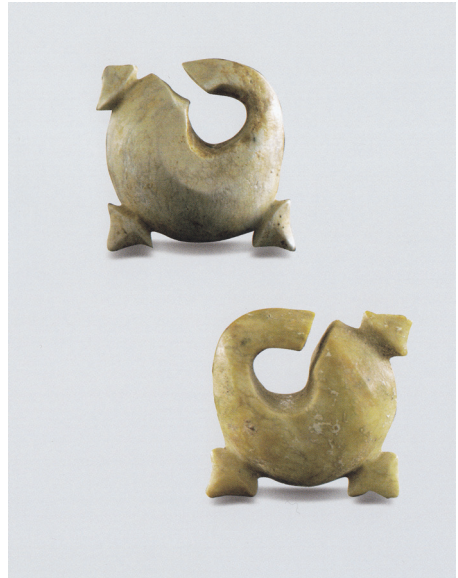
¹⁶ 이러한 동남아시아의 신석기시대 결상이식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일찍부터 연구가 이루어졌다. 일본 학자들은 이러한 형식의 귀걸이가 중국 요녕성 查海 유적이거나 절강성 河姆渡 유적과 같은 중국의 신석기시대 문화의 영향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 樋口清之, 「玦狀耳飾考 - 石器時代身體裝飾品之研究 其一」, 『考古學雜誌』33卷 1號(東京: 考古學會, 1933), pp.36-50; 樋口清之, 「玦狀耳飾考(二) - 石器時代身體裝飾品之研究 其二」, 『考古學雜誌』33卷 2號(東京: 考古學會, 1933), pp.107-115; 藤田富士夫, 「日本海をめぐる玉文化交流」, 日本海學推進黨議編, 『日本海學の世紀』(東京: 角川書店, 2001), pp.128-142; 中山清隆, 「繩文文化と大陸系文物」, 淺川利一・安孫子昭二編, 『繩文時代の渡來文化』(東京: 雄山閣, 2002), pp.221-224.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귀걸이가 베트남 쪽에서만 출토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신석기시대부터 비교적 먼 거리의 해로가 발달했음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귀걸이의 기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¹⁷ Anne Richter, 앞의 책(2000), p.26, pl.3.

다.¹⁸ 그중에서도 베트남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사후인(Sa Huynh, 沙黃) 문화권에서 즐겨 사용된 굵은고리 귀걸이들은 독특한 형식과 재질로 인하여 일찍부터 주목되었다.¹⁹

사후인 문화권에서 출토되는 귀걸이들은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필리핀어로 ‘링링오(Lingling-o)’라고 불리는 둥글고 큰 C자형 고리 모양의 귀걸이로서, 고리의 세 곳, 혹은 네 곳에 뾰족한 장식이 달린 형태이다^{도6}. 최근 이러한 형식의 귀걸이는 태국, 필리핀 일대에서도 출토되어서, 베트남뿐만 아니라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 다른 형식은 둥근 C자형 고리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독특한 동물의 머리를 표현한 쌍두형 귀걸이이다^{도7}. 귀걸이의 앞쪽에서 보면 뾰족한 새 얼굴과 같은 기묘한 형태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쌍두형 귀걸이는 베트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되고 있지만 역시 태국이나 필리핀에서도 종종 출토된다. 이 두 가지 귀걸이 형식을 사용한 사람들은 오스트로네시안(Austronesian) 어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추정되며, 이들의 활동 범위는 대만산 옥의 분포범위와 마찬가지로 사후인 문화권의 중심지인 베트남 중남부 해안가에서부터 필리핀과 대만에 이르는 넓은 지역이었다. 즉 이러한 광범위한 귀걸이의 분포범위를 통해서 당시 남중국해 연안과 동남아시아의 해양 문화 교류 양



6 옥제 링링오 귀걸이 사후인 문화 기원전 5세기~기원후 1세기 출토지 미상 2.8×2.8cm 지름 1cm 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 (Viet Nam-From Myth to Modernity, p.68)

¹⁸ 동남아시아의 역사는 중국 사서에 남아 있는 기록에 의해서 기원전 300년경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동남아시아의 자체적인 역사나 문자기록은 기원후 500~600년경까지는 희소한 편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동남아시아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다.

¹⁹ 사후인 문화권은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의 문화로서, 베트남 중남부 지역의 해안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사후인 문화권의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주요 유적은 기원전 500년경부터 기원후 100년경의 시기에 크게 발전했다. 사후인 문화권 유적은 20세기 초부터 베트남 각지에서 발굴되었는데, 화장한 후에 항아리에 넣어서 매납한 2차장의 분묘 유적이 중심이다. 분묘에는 각종 철기와 청동제 및 옥제 장신구들이 출토되며, 드물게 금제 장신구들도 발견된다. 아직까지 사후인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없으나, 동남아시아 고고학자 중에는 선사시대의 사후인 문화가 역사시대의 참파(Champa) 문화로 발전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William A. Southworth, "The Coastal States of Champa," in Ian Glover and Peter Bellwood (ed.), *Southeast Asia: From Prehistory to history* (London: RoutledgeCurzon, 2004), pp.212-213.



7
쌍두형 귀걸이
사후인 문화 1~3세기
베트남 중까보(Giong Ca
Vo) 출토
옥 및 유리제 5×5cm
하노이 베트남역사박물관
(*Việt Nam-From Myth to
Modernity*, p.69)

상이 매우 발달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⁰

링링오 귀걸이와 쌍두형 귀걸이의 분포가 해양을 통한 문화 교류임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귀걸이들의 재질이다. 초기 사후인 문화권에서 출토되는 링링오 귀걸이들의 경우에는 암록색의 연옥(軟玉, nephrite)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암록색의 연옥은 성분분석 결과 대만 동부의 핑티엔(Fengtien, 豊田)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²¹

대만산 연옥제 링링오 귀걸이는 베트남에서만 출토되는 것이 아니다. 대만에서부터 해안을 타고 내려와 필리핀 군

도를 지나서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을 지나서 인도차이나반도의 베트남 해안가와 캄보디아, 태국 남부의 까오삼께오(Kao Sam Kaeo), 말레이시아의 사라와

²⁰ 이 두 귀걸이 형식의 분포와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의 해양 활동에 대해서는 빌헬름 솔하임의 선구적 연구가 있다. 솔하임은 이 귀걸이들을 사용하던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동남아시아의 원주민으로서, 그의 후손들은 해로를 통하여 동남아시아의 섬들과 폴리네시아지역까지 이동해갔으며, 동북쪽으로는 일본을 거쳐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이동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솔하임은 이러한 해양 활동 민족들을 '누산타오(Nusantao)', 즉 '해양민족'이라고 부른다. 솔하임의 주요 연구로는 다음 글 참조. Wilhelm G. Solheim II, "Remarks on 'The lingling-o and bi-cephalous ornament,'" *Journal of the Hong Kong Archaeological Society*, vol.10(Hong Kong: Hong Kong Archaeological Society, 1982-1983), pp.107-111; Wilhelm G. Solheim II, "Taiwan, Coastal South China and Northern Viet Nam and The Nusantao Maritime Trading Network," *The Journal of East Asian Archaeology*, vol.2, no.1-2(Leiden: Brill Academic Publishers, 2000), pp.273-284; Wilhelm G. Solheim II, *Archaeology and Culture in Southeast Asia: Unraveling the Nusantao*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

²¹ Yoshiyuki Iizuka, Peter Bellwood, Ipoi Datan and Hung Hsiao-chun, "Mineralogical Studies of the Niah West Mouth Jade Lingling-o." *The Sarawak Museum Journal*, New Series, vol. LXI, no.82(Borneo: Sarawak Museum, 2005, 12), pp.19-29; Hsiao-Chun Hung, Yoshiyuki Iizuka, Peter Bellwood, Kim Dung Nguyen, Bérénice Bellina, Praon Silapanth, Eusebio Dizon, Rey Santiago, Ipoi Datan, and Janathan H. Manton, "Ancient Jades Map 3,000 years of Prehistoric exchange in Southeast Asia."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ol.104, no.50(Washington, D.C.: United States National Academy of Science, 2007, 12, 11), pp.19745-19750.



8
 각종 옥기 파편
 기원전 5세기~기원 전후
 2005년 필리핀 아나로 유적
 출토
 필리핀 국립박물관
 (*Paths of Origins*, p.39,
 Fig.25)

(Sarawak)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역시 대만산 연옥으로 만들어진 쌍두형 귀걸이도 링링오 귀걸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분포되어 있다.²²

링링오 귀걸이와 쌍두형 귀걸이의 제작은 대만에서도 이루어졌지만, 방향의 옥 덩어리가 필리핀, 베트남, 태국에서 모두 출토되고 있으므로 원료의 형태로 수출되어 각 지역의 공방에서 귀걸이로 가공했음을 알 수 있다. 대만의 옥 제작은 신석기시대 중국 강남지역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초기의 옥 공예품은 구슬이나 팔찌와 같은 예들이 많다. 대만산 옥제 공예품들은 이미 기원전 1500년 경부터 필리핀 지역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으며, 기원전 1300~1000년경에는 베트남 지역에도 대만산 옥이 수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²³

현재까지 알려진 대만산 연옥제 링링오 귀걸이들은 대부분 기원전 5세기경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옥 가공 공방 유적은 동남아시아의 여러 곳

²² Hsiao-chun Hung & Peter Bellwood, "Movement of Raw Materials and Manufactured Goods Across the South China Sea After 500 BCE: From Taiwan to Thailand, and Back." in Bérénice Bellina, Elisabeth A. Bacus, Thomas Oliver Pryce and Jan Wissemann Christie (ed.), *50 Years of Archaeology in Southeast Asia: Essays in Honour of Ian Glover*(Bangkok: River Books, 2010), pp.236-237.

²³ Hsiao-chun Hung, Yoshiyuki Iizuka and Peter Bellwood, "Taiwan Jade in the Context of Southeast Asian Archaeology." in Elisabeth A. Bacus, Ian C. Glover and Vincent C. Pigott, *Uncovering Southeast Asia's Past*(Singapore: NUS Press, 2006), pp.206-207.

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의 유적이 대만 남쪽 해상에 위치한 필리핀의 잇바야트(Itbayat) 섬에 있는 아나로(Anoro) 유적이다. 여기에서는 기원전 500년 이후의 옥기 공방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거친 옥 덩어리와 방형의 연옥판, 그리고 연옥판을 가공하여 둥글게 잘라낸 옥조각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²⁴. 옥조각들의 상태로 볼 때, 맨 먼저 연옥을 방형의 판으로 가공하였다. 그다음에는 방형판의 모서리를 잘라내서 둥근 디스크 형태로 만들고, 그 디스크에서 귀걸이 모양을 잘라낸 후, 귀걸이의 세부 형태를 조각한 것으로 보인다.

링링오 귀걸이는 보통 완전한 원형이라기보다는 약간 초승달모양에 가깝게 고리 부분이 조금 가늘고 배 부분이 뚱뚱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세 곳, 혹은 네 곳에 작은 원추형의 돌기를 조각해 놓는 경우가 많으며, 표면은 매끈하게 마연한다. 링링오에 비해서 출토 예가 적은 편이긴 하지만, 쌍두형 귀걸이도 역시 방형 옥판에서 잘라내서 만드는 방식을 따른다. 쌍두형 귀걸이는 링링오에 비해서 동물의 얼굴 표현 및 몸체의 가는 선 장식문 등 귀걸이 표면에 세밀한 장식문양이 조각된 경우가 많다. 대만산 연옥의 가공 흔적은 필리핀 팔라완(Palawan) 섬의 타봉 동굴(Tabong Caves) 유적을 비롯하여 대만에서 약 3000km 이상 떨어진 태국의 까오삼께오 유적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므로, 동남아시아 전역에 수출되었음이 확인된다.

링링오 귀걸이와 쌍두형 귀걸이는 대만산 연옥 이외에 여러 가지 돌로도 만들어지며, 드물게 유리로 제작된 경우도 있다. 아마도 유리제 귀걸이의 제작은 기원 전 후한 시기부터라고 추정되며, 유리는 옥을 대신하여 나타난 새로운 장식구 재료가 된다. 새로운 재료의 사용과 함께 링링오 귀걸이의 형태는 과장되고 장식적인 형식으로 변화된다.

싱가포르의 아시아문명박물관에 소장된 유리제 링링오 귀걸이는 폭이 12cm에 이르는 대형의 귀걸이로서,²⁵ 반투명한 청색의 유리를 캐스팅해서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기포가 고르게 남아 있으며, 긴 막대기 모양으로 변화된 돌기 장식이 달려 있다. 이러한 형태는 링링오 귀걸이 중에서도 비교적 과장된 장식으로 변형된 것으로, 기원후 1~5세기경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²⁴ Purissima Benitez-Johannot (ed.), *Paths of Origins: The Austronesian Heritage in the Collections of The National Museum of the Philippines, The Museum National Indonesia and The Netherlands Rijksmuseum voor Vkenkunde* (Singapore: ArtpostAsia, 2011), pp.33-41.

²⁵ Heidi Tan (ed.), *Việt Nam-From Myth to Modernity* (Singapore: Asian Civilisations Museum, 2008), p.68-상.

링링오 귀걸이와 쌍두형 귀걸이의 기본형은 C 자형의 굵은고리 모양의 귀걸이이다. 이러한 굵은고리 귀걸이 형식의 기원은 신석기시대부터 보이기 시작하지만, 이 귀걸이의 형식이 중국, 혹은 인도에서 전래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세하지 않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에 비해 굵은고리 귀걸이의 사용이 크게 유행했으며, 인도에서는 C자형보다는 꺾불의 구멍을 키우기 위한 원판형 귀걸이가 크게 유행했다. 그러므로 역사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속하는 동남아시아에서 제작된 대만산 연옥제 굵은고리 귀걸이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조형성을 보여준다. 즉 링링오 귀걸이와 쌍두형 귀걸이는 옥의 교역과 함께 발달한 동남아시아 고대 문화의 독특한 공예품이다. 이후 이러한 형식의 귀걸이들은 인도 문화의 전래와 금속 공예의 발달과 함께 금속제 귀걸이로 대체되기 시작했지만, 고유하고 독특한 조형성은 현대의 동남아시아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잔존하였다.



9
 옥제 링링오 귀걸이 및 각종
 구슬류
 기원전 2세기~기원전후
 베트남 팡남 라이옹이
 유적 출토
 (Arts of Asia 39:5, p.62,
 pl.9)

IV. 금속제 대형 귀걸이의 등장과 발전

고대 동남아시아의 옥석제 대형 귀걸이 형식은 금속, 특히 금의 사용과 함께 질과 형태가 변화하기 시작한다. 특히 금속제 C자형 귀걸이 형식은 역사시대 초기에 베트남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했으며, 곧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도서지역에까지 널리 전파되어 오랜 기간 동안 유행했다. 여기에서는 사후인 문화권 초기의 금제 귀걸이와 함께 역사시대 초기의 금속제 링링오 형식의 귀걸이 사용 전통과 그 변화 과정으로 살펴보겠다.

1. 사후인 문화의 금제 귀걸이

동남아시아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금속제, 특히 금제 귀걸이는 역시 베트남 지역에서 확인된다. 아마도 사후인 문화권에서 이러한 금제 장신구들을 본격적으로



10
 각종 구슬류와 금제 귀걸이
 기원전 2세기~기원전후
 베트남꽝남라이응이
 유적출토
 (Arts of Asia 39:5, 표지사진)

장신구들이 확인되었는데, 사후인 문화 특유의 링링오 귀걸이를 비롯하여 홍옥수제 및 마노제 장신구들이 다수 출토되었다⁹. 옥석제 귀걸이로는 단순한 C자형 굵은고리 귀걸이와 장식이 달린 링링오 귀걸이 형식이 모두 출토되었다. 이와 함께 작은 금제 귀걸이와 금제 구슬들도 발견되었는데¹⁰, 금제 귀걸이의 형태는 장식이 없는 단순한 C자형 가는고리 모양이다. 다만 매끈한 금속선을 구부린 것이 아니라 울룩볼룩한 주름진 빨대 모양의 금속선, 즉 ‘새김눈 금선(刻目金線)’을 구부려 만들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유사한 금제 귀걸이는 비슷한 문화권 유적으로 추정되는 남부 베트남의 종롱(Giong Long) 유적과 캄보디아의 쁘레이 벵(Prey Veng) 지방의 빗 미아스(Bit Meas) 유적에서도 출토되었다.²⁷ 이러한 귀걸이들은 대부분 분묘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각종 구슬과 함께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새김눈 금선으로 만든 작은 금제 귀걸이는 아마도 중남부 베트남과 캄보디아 일대에서 기원 전후의 시기에 일부 상류 계층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금이나 은과 같은 금속제 귀걸이가 선사시대의 동남아시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추정되지만, 각 유적의 편년이나 문화권 설정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금제 장신구들이 출토되는 유적들을 사후인 문화권, 혹은 先扶南(Pre-Funan) 문화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적들의 연대는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법에 의하여 대체로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전후한 시기로 알려져 있다.²⁶

이 중에서 조금 이른 시기의 금속제 귀걸이는 중부 베트남의 꽝남(Quang Nam) 지방의 라이응이(Lai Nghi) 지역에서 2002년 이후 발굴된 여러 고분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다수의 옥석제 및 금제

²⁶ Andreas Reinecke and Nguyen Thi Thanh Luyen, “Recent Discoveries in Vietnam: Gold Masks and Other Precious Items.” *Arts of Asia*, vol.39, no.5(Hong Kong: Arts of Asia Publication Limited, 2009. 9/10), pp.58-67.

²⁷ Andreas Reinecke and Nguyen Thi Thanh Luyen, 위의 글(2009), p.63, pl.12; p.66, pl.20.

유적에서 출토된 예는 많지 않다. 이것은 고분의 상태가 보존 상태가 좋지 않고 일찍부터 금을 채취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금제 장식품들이 도굴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기원 전후 이후에는 금속으로 제작되는 장신구의 수량이 훨씬 증가하며, 금속제 장신구의 출토 범위도 넓어진다. 또한, 이와 함께 금속제 장신구를 제작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도구들도 출토되고 있어서, 기원 전후한 시기의 동남아시아에서는 금속제 장신구, 특히 금속제 귀걸이의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2. 역사시대 초기의 금속제 귀걸이

기원 전후한 시기의 동남아시아 역사나 문화는 아직까지 자세하지 않은 편이다. 기원 전후한 시기의 동남아시아의 고고학적 유적은 문화적 성격으로 볼 때, 불교와 힌두교가 전래되고 본격적인 명문들이 나타나는 기원후 5~6세기경까지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유적들의 문화적, 역사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다. 이것은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고고학적 유적에서 절대 편년이 가능한 유물이나 명문 자료가 5~6세기경까지는 매우 드문 반면, 중국 사서에서는 기원전 3~2세기경부터 동남아시아에 고대 국가가 있었다고 전하기 때문이다.

중국 史書에 기록된 동남아시아의 가장 오래된 국가는 기원전 3~2세기경부터 있었다고 알려진 林邑과 扶南이라는 두 나라이다.²⁸ 이 두 나라는 현재의 베트남과 캄보디아 일대에 있던 나라로 추정된다. 이후 남조의 宋나라와 양나라의 사서에는 呵羅單國, 槃皇國, 槃達國, 閻婆達國, 盤盤國, 丹丹國, 干陁利國, 狼牙脩國, 婆利國 등 여러 나라가 중국과 교역을 했음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 사서에 보이는 이러한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대부분 나라별 역사적 실체 및 위치 비정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이 중에서도 비교적 위치 비정에 대한 논란이 적은 편인 곳이 바로 임읍과 부남이지만,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반도의 고대 유적지 중 어느 곳을 임읍이나 부남에 비정하느냐, 혹은 비정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너무나

²⁸ 임읍과 부남에 대한 비교적 이른 기록은 중국의 기록은 『晉書』 四夷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외에 동남아시아 고대사 관련 기록은 『宋書』, 『南齊書』, 『梁書』, 『南史』 등 중국 正史의 외국전에 실려 있다. 최근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2009년부터 원문과 국문 번역, 역주 등을 포함한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을 시리즈로 발간하여 국내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현재까지는 『史記』부터 『新五代史』까지의 외국전이 번역되어 있다. 본고에서도 이 역주본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구체적인 기록을 인용할 때에는 역주본을 기준으로 해당 기록의 서지사항을 기술한다.

많은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귀걸이의 사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고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은 베트남 북부와 중부에 있었다고 하는 임읍국이다. 『梁書』 『諸夷傳』에 의하면 임읍국에는 귀를 뚫어서 작은 고리를 다는 풍습이 있으며,²⁹ 왕은 법복을 입고 영락, 즉 구슬로 만든 목걸이를 매는데 마치 불상의 장식과 같다고 하였다.³⁰ 아마도 귀를 뚫고 작은 고리를 다는 풍습은 임읍을 비롯한 고대 인도차이나반도 일대에 널리 퍼진 풍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서』에서는 부남국의 기후와 풍속은 임읍과 같다고 했으므로,³¹ 이렇게 귀걸이 착용 풍습은 임읍과 부남 등 여러 나라에서 널리 행해진 것으로 보이며,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잔존하는 것이다. 아쉽게도 앞서 고찰한 사후인 문화권의 링링오 귀걸이나 라이옹이 유적 출토의 금제 귀걸이 등이 임읍국의 유물인지, 부남국의 유물인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사후인 문화와 역사상에 기록된 임읍, 부남국과의 상관관계를 설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사후인 문화와 그다음에 나오는 옥에오 문화의 물질문화적 특징은 서로 상관관계가 깊으며 유사점이 많다.

기원후 2~6세기경 남부 베트남과 캄보디아 일대에서 출토되는 옥에오(Oc Eo) 문화권의 유물들은 역사상에 기록된 부남국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³² 남부 베트남에서 20세기 초반에 발굴된 옥에오 유적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인근 유적들은 옥에오 문화, 부남국 문화, 혹은 프리 앙코르(Pre-Angkor) 문화로 편년되는 2~6세기경의 유적들로서, 20세기 후반부터 상당수가 발굴조사 되었다. 이 유적들에서는 사후인 문화 말기 유적들의 문화적 특징을 계승하면서도 인도

29 “其國俗……穿耳貫小環…….” 『梁書』 卷54, 列傳 제48, 諸夷傳, 林邑國條, 동북아역사재단편,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6 南齊書·梁書·南史 外國傳 譯註』(동북아역사재단, 2010), p.149. 이하 이 책은 『양서 역주본』으로 약칭함.

30 “其王著法服 加瓔珞 如佛像之飾.” 위의 글(2010), p.149.

31 “扶南國…氣候風俗大較與林邑同.” 위의 글(2010), pp.153-154.

32 扶南(푸난, Funan, Founan)의 역사에 대한 주요 개설로는 다음 글 참조. Paul Pelliot, “Le Fou-Nan.” *Bulletin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Tome 3(Paris: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1903), pp.248-303; Lawrence Palmer Briggs, “The Ancient Khmer Empire.” *Transaction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New Series, vol.41, no.1(Philadelphia: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951), pp.12-36; Michael Vickery, “Funan Reviewed: Deconstructing the Ancient.” *Bulletin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Tome 90-91(2003-2004), pp.101-143; James C. M. Khoo (ed.), *Art & Archaeology of Fu Nan: Pre-Khmer Kingdom of the Lower Mekong Valley*(Bangkok: Orchid Press, 2003); 강희정, 「푸난(扶南) 불교조각의 연원과 전개」, 『미술사와 시각문화』 8(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09), pp.40-67.

및 서방과의 활발한 문화 교류 흔적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인도의 불교 및 힌두교가 동남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전래되어 널리 숭앙되었으며, 건축 및 조각 양식에서도 인도의 영향이 강하게 보인다.

부남국의 주요 도시로 알려진 옥에오 유적에서는 금제 장신구가 상당히 많이 출토되었는데, 종류는 귀걸이, 반지 등이 많으며, 작은 금제 구슬류나 용도를 알 수 없는 장식도 상당히 많다¹¹.³³ 이 중에서는 힌두교에서 시바 신의 승물로 숭앙하는 성스러운 소 난디(nandi)를 장식한 금제 반지와 같은 예가 있어서, 이 지역에 당시 인도의 힌두교 문화가 강하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려준다. 그렇지만 귀걸이의 경우에



는 이 지역에서 성행하던 링링오 형식의 귀걸이를 모방한 C자형 굽은고리 귀걸이가 많이 만들어졌다. 사진 위쪽 중앙에 있는 커다란 귀걸이 한 점은 이러한 링링오 귀걸이 형식을 청동으로 만든 후 금박을 입힌 예로서 주목된다. 한쪽 면에는 삼각형이 일렬로 이어진 장식문양이 붙여져 있다. 이러한 링링오 귀걸이와 비슷하면서도 단순화된 C자형 굽은고리 귀걸이들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며 제작되었다.

옥에오 유적에서 출토된 석제 장신구 거푸집은 이러한 금속제 귀걸이의 제작 방식을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¹².³⁴ 길이 13.3cm, 높이 6.5cm, 한판의 두께 1.8~1.9cm인 이 장신구 거푸집은 두 판이 한 쌍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장방형

11
 각종 금제 장신구
 2~5세기
 베트남 옥에오 유적 출토
 호찌민 역사박물관
 (Anne Richter, *Jewelry of Southeast Asia* (2000),
 p.38, pl.33)

³³ 옥에오 유적은 1930년대 후반 프랑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었으며, 한동안 부남국의 수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는 부남국의 수도라기보다는 당시 발달했던 해상무역 및 상업의 거점 도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옥에오에서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그중에는 각종 금공품 및 서양의 동전, 중국제 동경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지역이 일찍부터 다국적 문화 교류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옥에오 출토 금공품의 개괄은 다음 글 참조. George Coëdès, "Fouilles en Cochinchine: Le Site de Go Oc Eo, Ancient Port du Royaume de Fou-Nan." *Artibus Asiae* vol.10, no.3(Ascona: Artibus Asiae, 1947), pp.193-199; Louis Malleret, "L'art et La Metallurgie de L'étain dans la Culture d'Oc-Eo." *Artibus Asiae* vol.11, no.4(1948), pp.274-284.

³⁴ 이 석제 거푸집은 프랑스 고고학자에 의해서 옥에오 유적에서 발굴되었으며, 최근 국내의 전시에서 여러 차례 소개되었다. Nancy Tingley, *Arts of Ancient Viet Nam: From River Plain to Open Sea*(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9), pp.138-139, pl.33; 성현주 편, 『베트남, 홍강에서 메콩강까지』(부산박물관, 2010), p.206.



12
 석제 장신구 거푸집
 3~5세기
 베트남 옥에오 유적 출토
 호찌민 역사박물관
 한쪽 석판 크기
 13.3×6.5×1.8cm
 (Arts of Ancient Viet Nam:
 From River Plain to Open
 Sea (2009), p.139, pl.33)

귀걸이들과 마찬가지로¹⁰, 귀걸이 표면 전체에 연속된 주름무늬, 즉 새김눈을 표현해 놓은 점이 특징이다. 다만 라이응이의 귀걸이는 전체적으로 지름이 가늘고 고른 봉 모양이었지만, 이 옥에오의 석조 거푸집에서 제작되었을 귀걸이는 고리의 앞쪽이 굵고 가운데 부분이 가늘어지는 형태인 점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귀걸이 고리의 굵기가 비정형인 형태는 아마도 이 지역에서 선행하던 옥제 링링오 귀걸이 형식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옥에오에서는 청동을 주조해서 만들고 그 위에 금박을 씌운 유사한 형태의 귀걸이도 출토되었기 때문에, 금속을 주조해서 장신구를 만드는 기법이 발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거푸집 위에 얇은 금속판을 대고 두드려서 귀걸이 형태를 만드는 타출기법도 이러한 거푸집의 사용과 함께 서서히 발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현존하는 유물들을 통해서 본 옥에오 출토 귀걸이들은 단순한 C자 형식의 굵은고리 형식이 기본인데, 고리의 두께는 비정형으로 끝부분이 좀 두껍고 안쪽이 가는 형식이 많다. 또한, 표면에는 가늘게 요철을 새겨서 주름진 형태의 새김눈 효과를 낸 점도 특징이다. 재료는 청동에 금박을 입힌 것이나 금으로 만든 것 등 다양하다. 금제 귀걸이 중에는 누금세공이나 타출기법 등으로 표면을 화려하게 장식한 귀걸이들도 종종 발견된다.

옥에오 유적을 중심으로 하는 부남국시대를 기점으로, 동남아시아의 귀걸이들은 각종 금속으로 제작되어 형태와 크기가 매우 다양해지기 시작한다. 아마도

의 석판에는 3개의 C자형 굵은 고리 귀걸이와 가는 원형 고리 1개, 굵은 금속제 장식선, 그리고 코끼리 문양이 장식된 원형 메달 등 모두 5점의 장신구를 제작할 수 있는 모양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두 곳의 귀통이에는 구멍과 축이 달려 있어서 두 틀이 서로 맞추면 정확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어 있다. 각 장신구를 새긴 음각 문양 위쪽에는 금속물을 부어 넣을 수 있는 주입구가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모두 주조품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새겨진 세 점의 귀걸이 문양을 보면 모두 단순한 C자형 귀걸이이지만, 라이응이에서 출토되었던 가느다란 금제

이러한 금속제 귀걸이의 발전은 인도를 통해서 전래된 새로운 금속공예 기법의 발전과도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V. 고대 귀걸이 양식의 지속성과 변화

부남국 이후에도 이러한 전통적인 굵은고리 귀걸이 형식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꾸준히 사용되었다. 또한, 5~6세기 이후에는 이러한 금속제 귀걸이들이 인도 차이나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일대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옥에오 유적에서 보이던 C자형의 각종 굵은고리 귀걸이 형태는 캄보디아 지역에서 10세기까지 사용되었으며, 고리 표면의 장식이 방사형으로 배치되어 입체적이고 화려한 형식으로 발전하게 된다.³⁵

대만제 연옥 재질이 중심이었던 고대의 사후인 문화시대와는 달리 5~6세기 이후의 링링오 형식을 계승한 귀걸이들은 대부분 금이나 은, 혹은 엘렉트럼으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링링오 형식을 계승한 귀걸이들은 동남아시아 거의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특히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한 곳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여러 도서지역이다.

그중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는 고전시대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금제 귀걸이가 발달했으며, 링링오 형식뿐만 아니라 인도의 영향을 받아 굵은 금속봉을 구부려 감아서 만든 형식의 귀걸이나 원반형 귀걸이, 금속봉 모양의 귀걸이 등 매우 다양한 형식이 사용되었다.³⁶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여러 도서지역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유행한 것은 고대의 링링오 형식 귀걸이 전통이다. 그러나 5~6세기 이후의 금속공예 발달과 함께 옥



13
귀걸이를 착용한 파남바르 원주민 남자
1940년
인도네시아 말루쿠섬에서 촬영
(Anne Richter, *Jewelry of Southeast Asia*, 2000, p.168, Fig.96)

³⁵ Anne Richter, 앞의 책(2000), pp.80-81, 도56, 도57 참조.

³⁶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 중에서도 특히 금제 귀걸이 및 장신구의 제작은 자바섬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고대 및 고전시대의 자바섬 출토 각종 금제 장신구에 대해서는 John Miksic, *Old Javanese Gold*(Singapore: Odeation, 1990) 참조.



14
 금합금제 귀걸이
 18~19세기
 인도네시아 바바르 군도
 높이 3~4cm 개인 소장
 (Gold Jewelry of the
 Indonesian Archipelago,
 p.84)

석제 귀걸이보다는 금속제, 특히 금제 귀걸이가 크게 유행한다. 각 도서지역 별로 링링오 귀걸이의 장식과 형태는 상당히 다양한 양식으로 발전하였다.

링링오 귀걸이의 전통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링링오 귀걸이 형식을 한 장식품을 펜던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1940년에 촬영된 인도네시아 말루꾸(Maluku)섬의 따님바르(Tanimbar) 원주민 남자의 사진을 보면¹³, 귓볼에 누금장식이 된 금속제 링링오 귀걸이를 피어싱하여 착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어싱의 전통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내려오고 있는 독특한 풍습인데,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동남아시아의 도서지역에서는 귀걸이의 굽기가 매우 굽은 대형 귀걸이를 착용하는 풍습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굽은고리 귀걸이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때부터 귓볼에 구멍을 뚫어서 서서히 구멍의 크기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신체적 표식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다양한 동남아시아 도서지역의 링링오 형식 계통의 귀걸이들은 대부분 금속으로 제작되며, 기본형은 대부분 고리 끝 부분이 굽고 중앙 부분이 가늘어지는 옥에오 시대의 귀걸이 형식을 계승하고 있다¹⁴. 인도네시아 바바르 군도(Babar Archipelago)에서 사용되는 금속제 귀걸이들은 대체로 기본형 귀걸이들이다. 현대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귀걸이들을 ‘마물리(Mamuli)’라고도 부르는데, 마물리 형식의 귀걸이의 재질과 제작 방식은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이 귀걸이들은 대부분 각지에 산재한 금속공방에서 제작되고 있으며, 누금세공기법 및 타출기법, 단조기법, 그리고 주조기법 등의 방식이 이용된다. 특히 금으로 제작되는 경우에는 속이 빈 경우가 많다. 동티모르 일대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사용되었던 은제 귀걸이들은 바바르 군도에서 사용되었던 것과 형식적으로는 유사한데, 은을 주조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누금기법을 차용한 금속 알갱이 장식들의 입체감이 점차 사라지고 단순한 장식 문양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³⁷

링링오 형태가 변화되어 나타난 근대의 마물리 형식 귀걸이 중에서 가장 독특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쉘바(Sumba)섬, 특히 이스트 쉘바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금제 귀걸이들이다.³⁸ 이스트 쉘바에서는 19세기 이후부터 마름모꼴 형태로 변화된 독특한 형식의 금제 귀걸이가 크게 유행했는데, 이들은 보통 4~9cm 이상의 대형 귀걸이이다. 표면과 사방 모서리는 모두 금선과 금알갱이를 붙여서 장식하는 누금세공기법을 이용하여 화려하게 장식되는 경우가 많다^{도15}. 특히 고리의 양쪽 끝 부분에 여러 가지 크기의 금알갱이를 이어 붙여서 나뭇가지 형태를 표현하기도 하고, 금선과 금알갱이를 꼬거나 이어 붙여서 사람이나 동물의 형태를 추상적으로 표현하여 독특한 미의식이 발휘된 점이 특징이다.³⁹



현대의 쉘바섬에서는 이러한 귀걸이들이 부족 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의례 때에 의례에 참석하는 상류층의 남성들에게 착용되었으며, 주로 조상 숭배 신앙과 관련된 의례에서 사용되어 왔다.⁴⁰ 현대에는 귀를 뚫어 귓불을 늘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장신구를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의례 때에 가슴이나 몸에 매다는 펜던트로 사용하기도 한다. 쉘바섬의 독특한 마물리 귀걸이 양식은 선사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형식에 새로 전래된 금세공기술과 지역적 특징이 합쳐져서 나타난 것으로서, 전통성과 함께 지역적 독창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금속공예품이다.

15
금제 귀걸이
18~19세기
인도네시아 이스트 쉘바 섬
높이 7~8cm 개인 소장
(*Gold Jewelry of the Indonesian Archipelago*, p.134)

³⁷ Anne Richter and Bruce W. Carpenter, 앞의 책(2011), p.103 참조.

³⁸ 쉘바섬은 지금까지도 선사시대의 지석묘형식의 분묘가 건립되고 있어서 일찍부터 한국 지석묘의 원류로서 주목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의 이견이 많으므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쉘바섬의 지석묘, 혹은 거석묘에 대해서는 조진선, 「인도네시아 쉘바섬의 거석묘 조영과 확산과정」, 『古文化』76(韓國大學博物館協會, 2010), pp.103-131 참조.

³⁹ 쉘바섬의 금제 마물리 귀걸이 형태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Anne Richter and Bruce W. Carpenter, 앞의 책(2011), pp.130-134.

⁴⁰ 쉘바섬 마물리 귀걸이의 의례적 용도 및 의미에 대해서는 Danielle C. Geirnaert, "The Pogo Nauta Ritual in Laboya (West Sumba) of Tubers and Mamuli," *Bijdragen tot de Taal-, Land- en Volkenkunde* 145-4(Leiden: Koninklijk Instituut voor Taal-, Land- en Volkenkunde, 1989), pp.445-463.

VI. 맺음말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지속적으로 귀에 피어싱을 하고 대형의 귀걸이를 착용하는 풍습이 발달하였다. 피어싱의 풍습은 중국 사서에서도 동남아시아 지역 문화의 특징으로서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러한 피어싱의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다. 특히 대형 귀걸이를 착용하기 위해서 어린이의 귓볼에 구멍을 뚫고 귓볼의 구멍을 서서히 늘려 가는 방식은 인도와 동남아시아 문화에서 남아 있는 독특한 전통적 풍습이다.

선사시대 동남아시아의 귀걸이는 대만제 연옥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다. 대만산 옥제 귀걸이의 존재는 원산지인 대만에서부터 생산지인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및 말레이 반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으로 대만산 옥이 전래되었음을 알려준다. 즉 이러한 옥의 교역은 선사시대부터 이미 남중국해 연안과 동남아시아의 해로를 통한 무역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해 있었음을 알려준다. 고대의 옥제 귀걸이는 크게 C자형 굽은 고리에 장식이 달린 링링오 귀걸이 형식과 동물 두 마리의 머리가 붙어 있는 형태의 쌍두형 귀걸이 형식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쌍두형 귀걸이는 역사시대 초기까지 사용되다가 점차 사라졌으나, 링링오 귀걸이 형식은 금속제로 전환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도서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링링오 형식의 귀걸이가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스트 술바 지역의 독특한 마물리 귀걸이 형식은 전통성과 독창성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금속공예품이다.

고대 동남아시아 문화를 대표하는 링링오 귀걸이, 혹은 C자형 굽은 고리 귀걸이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다. 링링오 형식의 귀걸이가 신석기시대의 남중국에서 왔는지, 아니면 인도나 이집트에서 왔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러한 귀걸이 형식들이 금속공예의 전래와 함께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금속으로 제작되기 시작했으며, 이때 옥에오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된 금속제 링링오 귀걸이 형식이 현대로 이어지게 된다.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옥에오 문화, 즉 부남국이 발전하던 때와 동시대의 중국에서는 이러한 형식의 대형 귀걸이를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동시대의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대형 귀걸이의 착장 흔적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미 필자가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한반도 남부의 대형 귀걸이 착장 풍습은 해로를

통해서 동남아시아로부터 전해진 독특한 문화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⁴¹ 이미 신석기 시대 이후로 대만과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인도차이나반도로 이어지는 뱃길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만에서 다시 오키나와와 대마도를 거쳐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뱃길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만은 없다.⁴² 한반도 남부, 특히 고신라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일찍부터 태환이식이 본격적으로 착장되었는데, 이러한 태환이식의 착용은 피어싱한 귓볼의 구멍 크기를 늘려야만 가능한 것이다. 즉 한반도 남부의 고신라와 동남아시아는 일찍부터 해로를 통한 인적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당시의 교류가 쌍방 교류였는지, 혹은 동남아시아에서 고신라에의 단선적 전래였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

고대 한반도와 동남아시아와의 교류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남은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구된 것도 거의 없다. 그렇지만 신라 고분에서 종종 출토되는 독특한 서방산 문물들은 이러한 오래된 바닷길을 통해 전해진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며, 특히 상류층의 귀걸이와 목걸이 등과 같은 장신구 문화에서 특히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앞으로 최근 진행되는 활발한 동남아시아의 고고학적, 미술사적, 인류학적 자료와 연구 성과가 좀 더 국내에 자세히 소개된다면, 이러한 고대 문화 교류 연구도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고대 바닷길을 통한 문화 교류 가능성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연구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미진한 글을 마친다.

주제어 key words

장신구 Jewelry, 동남아시아 Southeast Asia, 태환이식 thick earring, 베트남 Vietnam, 인도네시아 Indonesia, 고신라 Ancient Silla, 링링오 Ling ling-o, 사후인 Sa huynh

투고일 2012년 2월 28일 | 심사일 2012년 3월 26일 | 게재확정일 2012년 3월 30일

⁴¹ 주경미, 앞의 글(2003) 및 「VIII. 고신라 고분 출토 공예품을 통해 본 동서교류의 새로운 단면」, 중앙문화재단연구원 편, 『아시아의 고대 문물교류』(서경문화사, 2012), pp.199-238.

⁴² 5세기 이후 고신라시대의 고분에서는 오키나와산 이모가이 조개로 만든 마구 장식들이 출토되기도 하여, 이미 고신라와 오키나와와의 교류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박천수, 『새로 쓰는 고대 한일교섭사』(사회평론, 2007), p.316.

- 강희정, 「푸난(扶南) 불교 조각의 연원과 전개」, 『미술사와 시각문화』8,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09.
- 동북아역사재단 편,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6 南齊書·梁書·南史 外國傳 譯註』,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주경미, 「韓國 古代 耳飾의 着裝方式 研究」, 『역사민속학』17, 역사민속학회, 2003. 12.
- 중앙문화재연구원 편, 『아시아의 고대 문물교류』, 서경문화사, 2012.
- Bacus, Elisabeth A., Ian C. Glover and Vincent C. Pigott, *Uncovering Southeast Asia's Past*, Singapore: NUS Press, 2006.
- Bellina, Bérénice, Elisabeth A. Bacus, Thomas Oliver Pryce and Jan Wisseman Christie, ed. *50 Years of Archaeology in Southeast Asia: Essays in Honour of Ian Glover*, Bangkok: River Books, 2010.
- Benitez-Johannot, Purissima, ed. *Paths of Origins: The Austronesian Heritage in the Collections of The National Museum of the Philippines, The Museum National Indonesia and The Netherlands Rijksmuseum voor Vlkenkunde*, Singapore: ArtpostAsia, 2011.
- Briggs, Lawrence Palmer, "The Ancient Khmer Empire," *Transaction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New Series, vol.41, no.1, Philadelphia: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951.
- Carpenter, Bruce W. *Ethnic Jewellery from Indonesia - Continuity and Evolution, The Manfred Giehmman Collection*, Singapore: Editions didier Millet, 2011.
- Cœdès, George, "Fouilles en Cochinchine: Le Site de Go Oc Eo, Ancient Port du Royaume de Fou-Nan," *Artibus Asiae* vol.10, no.3. Ascona: Artibus Asiae, 1947.
- Glover, Ian and Peter Bellwood, ed. *Southeast Asia: From Prehistory to History*, London: RoutledgeCurzon, 2004.
- Iizuka, Yoshiyuki, Peter Bellwood, Ipoi Datan and Hung Hsiao-chun, "Mineralogical Studies of the Niah West Mouth Jade Lingling-o," *The Sarawak Museum Journal*, New Series, vol.LXI, no.82, Borneo: Sarawak Museum, 2005. 12.

- Khoo, James C. M., ed. *Art & Archaeology of Fu Nan: Pre-Khmer Kingdom of the Lower Mekong Valley*, Bangkok: Orchid Press, 2003.
- Miksic, John, *Old Javanese Gold*, Singapore: Odeation, 1990.
- Pandey, Rajbali, *Hindu Saṃskāra: Socio-Religious Study of the Hindu Sacrament*, Delhi: Motiral Banarsidass Publishers, second edition, 1993.
- Pelliot, Paul, "Le Fou-Nan," *Bulletin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Tome 3, Paris: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1903.
- Postel, Michel, *Ear Ornaments of Ancient India*, Bombay: Franco-Indian Pharmaceuticals, 1989.
- Reinecke, Andreas and Nguyen Thi Thanh Luyen, "Recent Discoveries in Vietnam: Gold Masks and Other Precious Items," *Arts of Asia*, vol.39, no.5, Hong Kong: Arts of Asia Publication Limited, 2009. 9/10.
- Richter, Anne and Bruce W. Carpenter, *Gold Jewellery of the Indonesian Archipelago*, Singapore: Editions didier Millet, 2011.
- Richter, Anne, *Jewelry of Southeast Asia*, New York: Harry N. Abrams, 2000.
- Solheim, Wilhelm G. II, "Remarks on 'The lingling-o and bi-cephalous ornament,'" *Journal of the Hong Kong Archaeological Society*, vol.10. Hong Kong: Hong Kong Archaeological Society, 1982-1983.
- Solheim, Wilhelm G. II, *Archaeology and Culture in Southeast Asia: Unraveling the Nusantao*,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
- Tan, Heidi, ed, *Viêt Nam-From Myth to Modernity*, Singapore: Asian Civilizations Museum, 2008.
- Tarling, Nicholas, ed, *The Cambridge History of Southeast Asia, volume one, part one, From Early times to c.15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Tingley, Nancy, *Arts of Ancient Viet Nam: From River Plain to Open Sea*,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9.
- Untracht, Oppi, *Traditional Jewelry of India*, London: Thames and Hudson, 1997.
- Vickery, Michael, "Funan Reviewed: Deconstructing the Ancient." *Bulletin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Tome 90-91, 2003-2004.

Joo, Kyeongmi

In this article, I surveyed the historical and stylistic development of ancient southeast Asian earrings, which remained in plenty but have never been researched in Korea before. Southeast Asian peoples have worn many kinds of earrings by piercing their earlobes from the Neolithic period to the present. Some of those earrings were too big and thick to wear, but those were worn in the holes of each owner's earlobe, which were penetrated during the childhood and enlarged from time to time until the owner became an adult. This piercing tradition might be transmitted to Southeast Asia from Indian subcontinent, and later influenced the southern part of ancient Korean peninsula.

In the ancient southeast Asia, many people wore peculiar thick earrings called "*Ling ling-o*". Most ancient *Ling ling-o* earrings were made in the local workshops. But in most case, the material itself was light green nephrite from the Fengtian mine in southern Taiwan. Such earrings were discovered in many archaeological sites of Southeast Asia, such as Vietnam and Philippines. Such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is Taiwanese nephrite *Ling ling-o* earring reveals the cultural and economical exchanges between the southeast Asia and Taiwan through the sea route.

During the early historical period, the nephrite *Ling ling-o* earrings were changed into a "C" shaped metal earrings. A stone mold for making "C" shaped earrings was excavated from an archaeological site of Funan in Southern Vietnam. In addition, some gilt bronze and gold "C" shaped earrings were discovered at several archaeological sites of Vietnam, Thailand and Indonesia. The usage of such metal earrings had continued for a long time, even until the

modern era.

The most famous traditional metal earring type in Modern Southeast Asia is “*Mamuli*”, an eccentric gold earring of Sumba Island in Indonesia. The main shape of Mamuli gold earring comes from the traditional “C” shaped thick earrings but modern Mamuli earrings have many symmetrical descriptive decorations with main shape. These Mamuli earrings are worn during the ancestral ceremonies in Sumba Island to honor their ancestors.

From ancient *Ling ling-o* to modern *Mamuli*, ancient southeast asian earrings share the main thick “C” shaped and enlarged piercing tradition. Such typical earring tradition of ancient Southeast Asia shows the cross cultural relationships not only between far distant regions but also between far distant times. Those earrings are very important as material and visual evidences to understand the jewelry customs and cultural exchanges of the ancient Southeast Asian culture and the other worlds.